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한마당축제 '춘하추동 별별연희'

당북초제7회 예술꽃 발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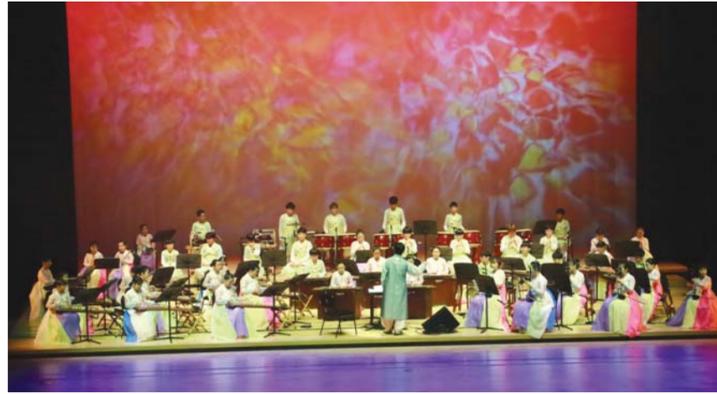
당북초등학교(교장 권영숙)는 지난 13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한마당축제 제7회 예술꽃 발표회를 열어 시선을 모았다.

이번 발표회는 '춘하추동 별별연희'라는 주제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별의별 재밌고 신나는 연희를 보고 즐김으로써 군산시민들이 희망찬 기운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우리 교육의 국악창작극으로 풀어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지역연계문화예술 공연으로 기획하여 전통악그룹 '동남풍', 김금희&소담스리아트 전문단체와 협업하였고 예술꽃 국악관련 악단의 '방황' 연주, 연극과 민요, 장구와 삼노를이, 난타, 북청사자놀이, 버나놀이, 창작무용 등을 선보이며 수준 높은 무대를 펼쳤다.

특히 당북초 4학년 아이들이 국내 유일하게 선보인 북청사자놀이, 5학년 버나놀이들의 짜릿하고 이슬이슬한 버나놀이는 더욱 특별함과 감동이 전해지는 공연이었다.

올해 당북초는 제7회 예술꽃 발표회 이외에도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및 건강증진 거점학교, 흡연예방 금연실천 심화형학교로서 긍정적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예술꽃나눔축제 '감사', '감동'의 테마로 군산시 주관 다양한 행사에서 축하공연과 함께 흡연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어울



당북초등학교는 지난 13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군산시민들이 희망찬 기운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우리 교육의 국악창작극 제7회 예술꽃 발표회를 열었다.

림'을 테마로 영호남 청소년 관현악 페스티벌 전북 대표팀으로 국악관현악과 함께 북청사자놀이, 버나놀이 한관 축제를 벌였으며, 흡연예방 연극 활동 및 홍보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번 예술꽃 발표회 창작국악극과 연계되어 예술의 생활화 및 흡연예방 실천화로 건강한 문화를 함께 나누고 건강한 환경 조성 분위기를 느끼는 소중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권영숙 교장은 "아이들이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예술꽃축제에 참여하여 벅찬 감동과 보람을 느끼며, 아이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익히고 창의성이 풍부해지며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며 "이번 예술꽃 발표회를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낸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제3대 전북플로어블협회장 이호섭 원광대 대학원장 취임

제3대 전북플로어블협회장에 이호섭 원광대 대학원장이 취임했다.

신임 이호섭 회장은 최근 익산시 동보성에서 새 이사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플로어블은 아이스하키와 필드하키를 접목한 새로운 스포츠로 마투나 우레탄 재질의 평평한 바닥에서 플라스틱 볼과 스틱으로 골을 넣는 경기다.

특히 다양하고 쉬운 경기장 변경을 통해 남녀노소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며,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이래 전북에서도 일선 학교 및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클럽팀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호섭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플로어블이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는데 헌신하신 전임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도내에 플로어블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저변 확대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대 서영진 대학원생, 한국가스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서영진 대학원생(자원·에너지공학과 석유공학실험실 박사과정·지도교수 이영수)이 최근 제주에서 열린 한국가스학회 2018년도 가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서 대학원생은 이번 학회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천연가스산업 기술동향 연구'라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의 기반 기술인 IoT, 센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들을 활용하여 가스산업의 상류, 중류, 하류 및 신에너지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연구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서 대학원생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당 제안 내용이 전문가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많이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4차 산업 기술의 실무 적용을 통해 국내 가스분야의 발전 및 정립의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김장나눔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회장 이상수)는 14일 겨울철을 앞두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김장을 담그며 온정을 나눴다.

이날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 회원들은 산서면사무소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후남 장수군새마을부녀회장과 이성춘 새마을지도자 장수군협의회회장을 비롯한 회원 80명이 참여, 2,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250세대에 전달했다.



정읍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김장대축제 열어

14일에 정읍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직매장(대표 이병태, 이하 고모네장터 직매장)에서는 개장 1주년을 맞아 김장대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고모네장터 직매장 관계자는 "그간 찾아주시는 고객에 대한 성원에 보답하고자 가을 무, 배추 수확기를 맞이하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행사를 열어, 농산물 품과 김장 양념채소류를 특관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고모네장터 직매장에서 북면지역 농업기반조직과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실시되었으며, 행사에는 고모네장터 직매장에 출하하는 참여농가 200여 명과 지역주민, 소비자들이 참여하여 공연을 관람하고 행사를 즐겼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시립농악단의 흥겨운 식전공연과 각살이 노래자랑, 기념품 증정 등이 있어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시 관계자는 "본 행사로 참여농가에서는 직접 기르고 생산한 농·특산품과 신선 농산물, 절임·양념채소류를 직거래하여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도농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말하며, 더불어 "로컬푸드직매장은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 남원우체국 격려 방문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최근 남원우체국(국장 유기권)과 수지우체국을 방문해 축하하고 격려했다.

남원우체국은 최근 우체국 FC 22명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성과향상 과정과 지속적인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안정적인 보험사업을 운영한 결과, 우체국보험 FC의 보험모집 점유율을 82%로 크게 높이며, 지난 8월 연도목표 100%를 조기에 달성했다.

또한 수지우체국은 지난 5월부터 '국제우편해외배송대행서비스'를 실시, 10월까지 400건이 넘는 실적을 올려 면 단위 우체국의 한계를 극복한 성공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해외나 국내에 있는 수요자가 여러 쇼핑물에서 다량의 물품을 해외 배송 희망시 우체국에서 상품을 배송받고 한꺼번에 포장, 발송해주는 서비스로 우체국의 새로운 맞춤형 비스라 할 수 있다.

김성철 전북우정청장은 "남원우체국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앞선 경영이 다른 우체국에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가00016
2009년 11월 25일 등록(일간)
(99)969/9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6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요지지사 010-9845-9855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02-3896	정읍지사 538-30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0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09-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